

C-8. 발치 전 치조골 수준만으로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윤지현,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치주치치로 회생이 불가능한 치아의, 발치 전 치조골의 방사선학적 흡수상에 의거하여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발치창 주위의 골조직에 어떠한 형태적 변화가 수반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한 후 예후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임상연구는, 중증 치주질환으로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한 부위에서 치조골의 수직적 형태 변화를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중증 치주질환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결손으로 발거한 치아들 중, 발치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부위의 발치 전 및 발치 후 표준 구내 방사선 사진을 채득하여 발치와의 근심부, 중앙부, 원심부 치조골의 수직적 수준의 변화를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상악 구치부 유리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악에 걸쳐, 발치전 심하게 흡수된 치조골의 수직적 골고 경이 발치와 양측의 인접부 골수준을 연결한 가상선에 근사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상악 구치부 유리단의 경우 상악동의 함기화가 병행되어 치조골이 근단측으로 현저히 흡수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론

발치 후 치조골의 수직적 고경의 회복양상을 고찰해 볼 때, 상악 구치부 유리단을 제외하고는, 중증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를 발거하기 전에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속단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발치와의 협설측 골폭경의 회복에 관한 관찰이 불가능했던 점이 본 연구의 제약성으로, 향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